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조 주 은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405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사용된 측정도구는 최경순(1992)이 제작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 척도'와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제작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의 제 하위요인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체에 대해 약 12.5%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스트레스 대처행동

1)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2) 교신저자 : 정옥분,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론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고학력화, 자녀수 감소, 가사노동의 기계화 등의 추세로 기혼 여성의 직업 진출이 촉진되고 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물가, 교육비, 노후생활 대비비 등의 문제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Parke & Tinsley, 1987).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민주화와 여성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여성의 취업여건이 향상되었으며, 80년대 후반의 경기호황으로 기혼여성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Kim & Kim, 2002). 또한 여성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1999년의 조사결과 30-39세 집단의 기혼여성 중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한 여성의 비율은 25.8%로 높았고(통계청, 1999), 대학 재학중인 3, 4학년 여학생의 83.0%가 결혼과 관계없이 ‘평생’ 일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00).

전통적 시각에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자녀양육은 어머니에게 일임되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근본적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성별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여 부과하였던 전통적인 안팎의 역할 분담에 부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Lamb, 1986). Lamb(1981)은 현대를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라고 지칭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어머니에게도 경제적 공급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발달의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질적으로 다른데 자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강한 애착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는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할 표현적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적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Lamb, 1986; LaRossa, 1988). 실제로,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할지라도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아동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Lamb, 1981; Parke, 1981; Parke & Tinsley, 1987). 198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서구의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성역할, 학업성취, 사회적 적응, 공격성의 통제 영역에서 관련성을 보였다(Adams, Milner & Scherepf, 1984; Lamb 198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은 무려 100여 편을 넘고 있으며(최경순, 1992),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도는 저조한 편이지만 여러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역할 특성, 인지발달, 사회적 능력, 도덕성, 자아개념, 정서발달, 창의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명수, 1985; 김선영, 1986; 이미정, 1987; 최경순, 1992; 김미진, 1997).

한편, 오늘날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논하고자 할 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겪는 현상쯤으로 여겨져 왔으나, 근래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생활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

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Elkind(1984)는 현대의 아동을 “쫓기는 세대”로 표현하고 있다. 아동기는 걱정이 없고 행복한 시기로 이상화되어 오곤 했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아동에게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 주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성인의 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힘들고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iros, Porter, & Welch, 1983)는 점에서 더욱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 도시아이의 44%가 노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되고, 전체 초등학교 학생 중 56.7%가 학교 수업외 과외를 받으며, 54%가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보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학령기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심리 정서적인 부적응 및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들(Compas, 1987; Holahan & Moos, 1987)이 보고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 개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단순히 외부적인 것이나 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로 보는 관

점에 입각해서 볼 때, 개인의 적응력을 예측하여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관계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정서지능, 사회지지, 부모-자녀간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등(장은수, 1995; 부영희, 2001; 주현정, 2002; 김학진, 2000)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다양한 관계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구체적인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아동의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성’ 입증 연구에 치우쳐 있고, 다양한 관계 요인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참여도가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본 선행 연구에서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아동들의 대처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이론과 일치한 결과들이 나왔다(서성은, 1996; 부영희, 2000; 김학진, 2000).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련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참여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강란해(2000)는 어머니와 비교되는 아버지의 역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어머니보다 빈도가 낮고, 자녀와의 대화가 적으며,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적고, 남아에 대해 활동이 많으며, 직접적으로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와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하며, 아버지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아동의 적응에서 중요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도 일반적인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특성과 양육 참여시간에서 어머니와 차별화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많은 아동들이 적절하게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의 연령, 직업,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배경(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의 연령, 직업,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소재한 4개 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 4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연구대상 405명 중, 남아 217명 (53.6%), 여아 188명(46.4%)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조금 많았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43%, 6학년이 57%이며, 아동의 출생순위의 분포는 첫째 35.8%, 가운데 8.9%, 막내 43.5%, 외동이가 11.9%로 첫째와 막내가 많았는데, 이는 두 자녀 가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연령분포를 보면, 41세에서 50세가 77.8%로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의 직업분포는 사무직과 관리/전문직이 62.9%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2.8%, 대학교 졸업 이상이 62.7%였다. 어머니는 63.7%가 비취업모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의 아동이 중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이 평정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유형 및 양육참여도 검사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경순(1992)이 선행연구를 참고로 해서 제작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의 내용을 기초로 문장의 표현을 수정·보완한 이학옥(1998)의 질문지를 본 연구자들이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위요인으로 자율 11문항, 애정 11문항, 성취 6문항, 관심 8문항으로 그 유형이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전체 .93, 하위요인별로는 자율 .82, 애정 .85, 성취 .68, 관심 .79이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최경순(1992)이 제작한 척도를 예비조사를 거쳐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고치고 보충설명을 덧붙여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위요인으로 여가활동 13문항, 생활지도 9문항, 가사활동 4문항, 학습지도 4문항으로 그 유형이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전체 .93, 하위요인별로는 여가활동 .90, 생활지도 .85, 가사활동 .77, 학습지도 .61이다.

각 척도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할수록 높은 점수로 배정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제작한 척도를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고쳤으며, 4점 리커트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적극대처 9문항, 소극대처 11문항, 공격대처 6문항, 회피대처 9문항, 사회지지추구대처 5문항으로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전체 .85, 하위요인별로는 적극대처 .83, 소극대처 .74, 공격대처 .78, 회피대처 .60, 사회지지추구대처 .77이다.

연구 절차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강남구의 1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65명을 대상으로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아동들의 질문을 토대로 하여 수정·보완된 질문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4년 3월 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4개 학교를 방문하여 5,6학년 각 교실에서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정으로 Scheffé의 다중 비교검증을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제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전반적 경향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하위영역은 고르게 3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고, 가

표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경향

양육 행동	평균	표준 편차	양육 참여도	평균	표준 편차
자율	3.38	.67	여가활동	3.03	.89
애정	3.41	.80	생활지도	3.27	.83
성취	3.22	.77	가사활동	3.02	1.09
관심	3.40	.84	학습지도	2.55	.85

표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향

스트레스 대처행동	평균	표준편차
적극적 대처	3.29	.74
소극적 대처	2.93	.72
공격적 대처	2.89	.87
회피적 대처	2.90	.58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3.10	.91

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것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있었다. 한편, 아버지는 아동의 양육참여에 있어, 잘못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등의 생활지도에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학습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숙제를 지도하는 등의 학습지도에는 비교적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표 3)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각 하위요인인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자율, 애정, 관심, 성취의 영역에서 모두 유의했고, 사후검증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와 사무직인 경우에 생산/판매서비스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행동도 각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했으며, 특히, 성취와 관심의 양육행동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상일 때와 중학교 졸업이하일 때의 집단간 평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가 ‘중하’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표 4)를 살펴보면,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아동의 성별과 학년, 아버지의 연령과 직업,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여아일 경우에 아버지는 가사활동 참여에서 높은 참여를 나타냈고,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생활지도에의 참여가 많았으며, 아버지의 연령이 40대인 경우가 50대 이상인 경우보다 생활지도에 유의하게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에의 참여에서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인 경우가 생산/판매서비스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양육참여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수	구분	자율		애정		성취		관심	
		M	SD	M	SD	M	SD	M	SD
아동의 성별	남	3.38	.67	3.36	.77	3.25	.73	3.38	.85
	여	3.39	.67	3.46	.84	3.18	.81	3.41	.83
	F	.013		1.695		.895		.117	
아동의 학년	5학년	3.45	.68	3.48	.79	3.29	.79	3.41	.83
	6학년	3.33	.66	3.35	.81	3.16	.74	3.39	.85
	F	3.109		2.720		3.171		.047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3.42	.66	3.41	.82	3.20	.82	3.45	.88
	가운데	3.24	.68	3.18	.82	3.00	.84	3.24	1.01
	막내	3.38	.66	3.42	.77	3.23	.73	3.37	.78
	외동이	3.39	.72	3.50	.86	3.37	.64	3.22	.80
	F	.671		1.181		1.617		.813	
아버지 연령	31-40세	3.31	.65	3.30	.89	3.16	.76	3.25	.95
	41-50세	3.40	.67	3.44	.79	3.23	.77	3.43	.82
	51-60세	3.30	.62	3.31	.74	3.20	.71	3.33	.75
	F	.765		.967		.202		1.473	
아버지 직업	생산/판매서비스	3.12 b	.64	3.06 b	.79	2.96 b	.73	3.05 b	.84
	사무직	3.44 a	.65	3.48 a	.72	3.30 a	.78	3.46 a	.83
	관리/전문직	3.52 a	.73	3.50 a	.85	3.38 a	.71	3.45 a	.83
	기타	3.35 ab	.59	3.45 a	.86	3.09 ab	.76	3.52 a	.80
	F	5.731**		5.739**		5.460**		5.213**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28 ab	.75	2.97 b	1.03	2.79 b	.90	2.83 b	.99
	고졸	3.21 b	.61	3.24 b	.76	3.05 b	.69	3.22 b	.81
	대졸이상	3.48 a	.67	3.52 a	.78	3.33 a	.77	3.53 a	.81
	F	7.681**		8.196***		9.344***		10.844***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3.38	.69	3.34	.78	3.22	.76	3.38	.83
	비취업	3.39	.65	3.44	.81	3.22	.77	3.41	.85
	F	.009		1.342		.001		.112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3.63 a	.87	3.78 a	.82	3.62 a	.75	3.83 a	.85
	중상	3.50 ab	.69	3.52 a	.83	3.36 ab	.75	3.56 ab	.84
	중간	3.33 ab	.61	3.35 ab	.76	3.13 b	.75	3.30 b	.80
	중하	3.12 b	.66	3.00 b	.78	2.91 b	.79	3.06 b	.82
	하	3.32 ab	.84	3.86 ab	1.09	3.83 ab	.24	4.06 ab	1.15
	F	3.865**		5.241***		5.969***		5.932***	

* p<.05, ** p<.01, *** p<.001

ab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변수	구분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M	SD	M	SD	M	SD	M	SD
아동의 성별	남	3.01	.85	3.24	.84	2.92	1.06	2.53	.87
	여	3.07	.94	3.29	.82	3.14	1.12	2.57	.82
	F	.419		.333		4.278*		.151	
아동의 학년	5학년	3.08	.84	3.38	.80	3.01	1.09	2.64	.82
	6학년	3.00	.93	3.18	.84	3.03	1.10	2.48	.87
	F	.952		5.328*		.046		3.267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3.15	.92	3.30	.86	3.06	1.10	2.56	.87
	가운데	2.75	.90	3.02	.82	2.88	1.02	2.33	.62
	막내	2.99	.83	3.27	.80	3.04	1.07	2.56	.85
	외동이	3.04	1.00	3.34	.84	2.97	1.22	2.63	.91
	F	2.227		1.244		.296		.937	
아버지 연령	31-40세	2.94	.98	3.08 ab	.88	2.87	1.07	2.48	.91
	41-50세	3.08	.87	3.33 a	.82	3.05	1.11	2.56	.85
	51-60세	2.67	.83	2.87 b	.61	3.15	.93	2.51	.68
	F	2.773		5.363**		.897		.286	
아버지 직업	생산/판매서비스	2.68 b	.94	2.89 b	.75	2.78	1.06	2.25 b	.75
	사무직	3.18 a	.87	3.38 a	.85	3.05	1.04	2.61 a	.87
	관리/전문직	3.14 a	.85	3.39 a	.79	3.02	1.22	2.48 ab	.80
	기타	2.94 ab	.87	3.23 ab	.82	3.20	1.07	2.76 a	.86
	F	6.060***		6.811***		1.886		5.224**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2.18 c	1.09	2.83 b	.99	2.40 b	1.09	2.38	.86
	고졸	2.78 b	.81	3.01 b	.77	2.81 b	1.07	2.51	.83
	대졸이상	3.23 a	.85	3.43 a	.81	3.18 a	1.07	2.58	.86
	F	21.311***		14.865***		8.391***		.714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3.02	.92	3.26	.86	3.15	1.14	2.53	.83
	비취업	3.04	.88	3.27	.81	2.95	1.06	2.56	.86
	F	.061		.017		2.929		.058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3.43 a	.93	3.74 a	.88	3.18	1.18	2.80	1.07
	중상	3.25 a	.89	3.45 ab	.83	3.02	1.13	2.60	.92
	중간	2.94 ab	.85	3.18 bc	.78	3.01	1.05	2.50	.77
	중하	2.67 b	.91	2.81 c	.80	2.95	1.17	2.37	.85
	하	2.46 ab	.54	3.06 abc	.71	2.88	1.24	3.25	1.41
	F	5.594***		7.657***		.222		1.752	

*p<.05, **p<.01, ***p<.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활동 참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 학력이 대학 졸업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와 중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는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서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표 5)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 아버지의 직업,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아동의 출생순위와 아버지의 연령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소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적 대처행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서는 적극적 대처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와 아버지 학력이 대학 졸업이상인 경우가 적극적 대처행동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의 아동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적 대처행동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표 6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제 하위요인 중 자율적 양육행동과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행동에서는 적극대처, 소극대처, 회피대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관심적 양육행동에서는 적극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제 하위요인인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양육행동은 모두 아동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표 7)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제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에의 참여와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단, 생활지도 참여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습지도 참여에서는 회피적 대처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적 양육행동과 성취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10%였으며,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변수는 자율적 양육행동으로 7.9%를 설명해 주었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변수	구분	적극대처		소극대처		공격대처		회피대처		사회지지추구 대처	
		M	SD	M	SD	M	SD	M	SD	M	SD
아동의 성별	남	3.25	.77	2.80	.73	2.95	.87	2.92	.59	2.94	.92
	여	3.33	.70	3.08	.69	2.82	.87	2.89	.57	3.28	.88
	F	.988		15.457***		2.141		.154		14.976***	
아동의 학년	5학년	3.38	.69	3.03	.66	2.80	.84	2.93	.57	3.10	.90
	6학년	3.21	.77	2.85	.77	2.95	.89	2.88	.58	3.10	.93
	F	5.491*		6.200*		2.865		.708		.009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3.25	.76	3.01	.80	2.90	.85	2.91	.63	3.14	.93
	가운데	3.19	.84	2.93	.72	3.05	.86	2.84	.44	3.16	.79
	막내	3.33	.71	2.90	.66	2.84	.88	2.92	.59	3.05	.94
	외동이	3.30	.71	2.83	.71	2.93	.92	2.89	.47	3.07	.86
	F	.478		1.034		.658		.178		.309	
아버지 연령	31-40세	3.12	.82	2.89	.69	2.80	.69	2.92	.63	2.87	1.00
	41-50세	3.32	.73	2.93	.73	2.89	.73	2.89	.57	3.13	.90
	51-60세	3.33	.51	3.10	.72	3.13	.72	3.06	.50	3.26	.71
	F	1.970		.707		1.229		1.020		2.660	
아버지 직업	생산/ 판매서비스	3.12 b	.82	2.92	.70	3.02	.81	3.00	.55	3.05	.82
	사무직	3.30 ab	.73	2.88	.73	2.84	.90	2.85	.60	3.12	.95
	관리/전문직	3.45 a	.64	3.03	.73	2.84	.93	2.89	.58	3.12	.96
	기타	3.23 ab	.76	2.94	.72	2.94	.81	2.94	.53	3.07	.87
	F	2.804*		.749		.924		1.187		.13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2.86 b	1.04	2.87	.69	2.89	.63	3.14	.67	3.14	1.02
	고졸	3.09 b	.67	2.88	.73	2.85	.85	2.88	.58	2.98	.80
	대졸이상	3.42 a	.72	2.96	.72	2.91	.90	2.90	.57	3.15	.96
	F	12.532***		.613		.272		1.596		1.597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3.32	.71	2.93	.71	2.95	.88	2.95	.62	3.22	.87
	비취업	3.27	.76	2.93	.74	2.85	.87	2.88	.55	3.03	.93
	F	.402		.002		1.154		1.695		4.010*	

* p<.05, ** p<.01, *** p<.001

ab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표 6.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

구 분	자율	애정	성취	관심
적극적 대처	.519**	.476**	.376**	.379**
소극적 대처	.041	.035	.105*	-.003
공격적 대처	-.086	-.156**	.004	-.072
회피적 대처	.056	-.018	.136**	-.040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405**	.348**	.244**	.324**

*P<.05, **P<.01

표 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

구 분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적극적 대처	.446**	.535**	.302**	.365**
소극적 대처	.057	.058	.044	.091
공격적 대처	-.080	-.110*	-.084	.016
회피적 대처	.010	.064	.059	.10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306**	.366**	.312**	.311**

*P<.05, **P<.01

표 8.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B	β	R ²	R ² 변화량	F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율양육	.205	.280	.079	.079	34.334*
	성취양육	.108	.169	.100	.021	22.451*

* P<.05

표 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B	β	R ²	R ² 변화량	F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생활지도	.164	.279	.078	.078	33.989*
	학습지도	9.022E-02	.169	.094	.016	20.790*

* P<.05

표 10.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B	β	R ²	R ² 변화량	F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율양육	.205	.280	.079	.079	34.334*
	학습지도 참여	9.824E -02	.171	.101	.022	22.500*
	성취양육	8.586E -02	.135	.114	.013	17.154*
	관심양육	-9.039E -02	-.156	.125	.011	14.291*

* P<.0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중다회귀분석(표 9)에서는 생활지도 참여와 학습지도 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9.4%였으며,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생활지도 참여로 7.8%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 모두를 설명변수로 넣은 중다회귀분석(표 10)에서는 자율적 양육행동, 학습지도 참여, 성취적 양육행동, 관심적 양육행동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12.5%였다. 역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변수는 자율적 양육행동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전반적 경향

아버지들은 주로 아동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아동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취적 양육행동인 일상생활과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하고, 적합한 교육환경을 직접 마련해 주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행동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참여도의 경향과도 비슷한데, 아버지는 아동에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예절지도, 일상생활습관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지도에는 많이 참여하나, 아동의 학습을 위해 숙제를 지도해 주는 등의 활동 참여는 매우 저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우세하게 남아 있어 아버지는 주로 아동을 훈육하고 사회 규범에 대해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보다 구체적인 양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동들에게 온화하고, 친밀하게 대하는 애정적 양육행동을 비교적 많이 나타냈다는 사실은 정옥분 등(1997)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형태에서 ‘자부자모(慈父慈母)’의 형태로 옮겨왔음을 시사해 준다. 어머니가 전담해왔던 가사활동도 아버지의 참여가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해 오늘날의 가정이 가사분담의 형태

로 변화해 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아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었으나, 스트레스가 다양한 만큼 그에 대한 대처행동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대처보다 다양한 유형의 대처가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Parlin과 Schooler(1978)의 연구결과와, 적절하게 대응행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Laux와 Vossler(1982)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는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일 경우에 양육행동점수와 참여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아버지의 학습지도 참여도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판매서비스직인 경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단,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는 아버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가사활동에의 참여는 직업 자체보다 가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전문/관리직, 사무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할 경우가 생산/판매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아버지 역할 수행이 더 높았다는 최경순과 오미경(1991)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Lynn(1974)은 아버지의 직장에서의 지위와 가

정 내에서의 태도와 권위가 비례하고 직장의 요구 및 좌절이 자녀의 양육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Volling과 Belsky(1991)는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양육참여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직장의 환경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직업과의 관계는 그 종류의 특성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의 직장분위기가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해 더 포용력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과 장래를 위한 교육적 환경 마련에 신경을 썼으며, 아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참여도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들은 아동양육에 있어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사활동 참여가 아버지 학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녀의 가사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일상생활지도에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수입이 많을수록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영순(198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결과는 출생순위와 양육태도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Volling(1997)의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Coverman과 Sheley(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출생순위의 분포가 첫째와 막내, 외동이가 90% 이상으로, 자녀수가 한 자녀, 두 자녀인 가정이 대부분인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행동과 참여의 차이는 줄어들고, 아버지는 자녀의 수가 적은 만큼 자녀 양육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도 비록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양적으로는 적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취업모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에 따른 보완책이 인식의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역할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아버지는 자녀가 딸일 때 가사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했는데, 이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는 De Luccie(198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특히 딸에게 있어 가사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의 아버지는 자녀수가 한두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아들이나 딸을 구분하여 양육하기 보다는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개념에서 벗어나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아동이 어릴수록 생활지도에서 더 높은 참여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분석에 제

한이 있다. 한편,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서 40대가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인 것은 이전의 연구들이 연령이 낮을수록(조선휘, 1998),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김옥엽, 1982) 아버지 역할수행의 질과 참여가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30대는 아버지의 직업적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비해, 40대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보다 안정되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비해 50대의 양육참여가 저조한 것은 연령이 높은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대처에 속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문제해결이나 정서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구적, 정서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행동인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문제해결보다 문제상황을 회피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한다는 Compas 등(1988)의 연구보고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기 위해 상황에 따라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극적 통제인 1차적 대처행동에서 다소 수동적인 2차적 대처행동으로 변화한다는 일련의 연구결과(Folkman & Lazarus,

1984)나,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문제 해결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정원주, 1997)와는 다른 결과였다. 아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에 따라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루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비록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대처로 반응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연령차이가 크지 않아 단정적으로 연령과의 차이를 말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ander, Million, Shemis(1985)등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은 성인과 비교할 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대처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성인보다 낮은 통제감을 지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상황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Kliewer, 1991), Piaget의 도덕성 발달단계상 권위있는 환경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를 한다(유안진, 1995). 그러므로 아동은 소극적이고 정서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는 성인과 달리 아동에게 더 적응적인 경우가 있다(Kliewer, 1991).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적 대처행동을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에 아동이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이 그 자체로는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으며, 취업한 여성의 학

동기 자녀들이 전업주부의 자녀들보다 적응을 더 잘한다는 Hoffman(198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어머니와 아동 간에 빈번한 상호작용이 있다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하고 오히려 아동에게 어머니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오는 심리적인 이점을 전해 줄 수 있으므로(Moorehouse, 1991),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찾아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성취를 격려하고 아동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줄수록, 또한 아버지가 아동과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일상생활과 사회 규범에 대해 지도해 주며, 어머니와 가사에 서로 조력하고, 아동의 학업을 위해 지도해 주는 등의 학습지도에 많이 참여 할수록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지추구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아동의 회피적인 대처행동은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학습지도 참여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부모의 성취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회피적 대처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부영희(2000)의 연구결과

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성취적인 양육행동과 학습지도에의 활발한 참여가 아동의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관련되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부분이다. 아버지의 성취적인 양육행동이나 학습지도 참여는 적절하게 학업수행을 도와주며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거나, 아동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학습을 돌봐주고, 준비물을 챙겨주는 정도로 이뤄진다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성취를 강요하고 아동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며 장래에 대해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할 경우 아동의 부정, 체념 혹은 순응 등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행동과 소극적 대처가 낮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은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인의 지시에 따르고 수용하는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Fabes & Eisenberg, 1992; Karninol & Heiman, 1987), 이러한 경향은 부모나 연장자 등 외부 권위에 대한 순응을 미덕으로 믿는 동양권 내의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한 연구(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문화정서상으로 볼 때, 자녀의 교육에 있어 부모에 대한 순응이 ‘예’와 ‘효’란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아동은 부모의 성취에 대한 격려나 학습지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상황을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그런 과도한 기대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거부하여 공격적

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체념하면서 상황을 다루는 경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가장 긍정적인 대처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인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장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인기에 비해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낮다는 아동기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소극적, 회피적 대처방법과 같은 정서적인 대처방법이 적응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연구결과(Kliewer, 1991)에 비춰보아 아동의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중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소극적인 대처와 회피적인 대처행동의 유용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의 각 하위요인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체에 대해 각각 10%와 9.4%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앞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큰 설명력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약 10% 정도의 설명력은 작은 것이 아니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서성은, 1996; 부영희, 2000; 김학진, 2000; Hardy et al., 1993)을 지지해 준다. 특히, 아버지의 자율과 성취의 양육행동과 생활지도, 학습지도에의 참여만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선택된 것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행동들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사회생활규범 지도에의 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입증해 주며, 아동도 사회규범을 전달해 주고 일상생활의 규율을 지도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역할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비교 연구가 이어져 그 차이를 규명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참여도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영역인 학습지도 참여가 설명변수로 채택된 것은 어머니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한 아버지의 참여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가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유한 역할(Amato, 1994; Luster & Okagaki, 1996)을 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의 하위영역 모두를 함께 고려했을 경우에는 전체 12.5% 정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참여도는 학습지도에의 참여만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채택되었고, 아버지의 자율, 성취, 관심적 양육행동이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참여자체도 중요하나 어떤 태도로 양육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역할

을 해 주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특히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른 표집과 정확한 자료가 요구될 것이며,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효과, 관련 변인의 통제 등을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은 부모의 역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상황적인 측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선행연구(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에 비춰,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다양한 아버지 개인의 심리적 특성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관련변인으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양적인 참여 자체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참여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고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 뿐 아니라,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대

처하는 행동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아동기의 특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미국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회피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박성옥(2001)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란혜 (2000). 아버지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동향. 대한가정학회지, 38(7), 153-165
- 김명수 (198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 정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엽 (1982). 아버지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1986). 부-자녀 관계가 자녀의 창의성 성취 욕구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진 (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유안진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성옥 (200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성취 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9), 63-78.
- 부영희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지수가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성은 (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험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1995). 인간발달신강. 서울: 문음사.
- 이영순 (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옥 (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과 청소년기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기존중감의 형성.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수 (1995).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특성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 (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8
- 정원주 (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화 (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현정 (2002). 유아-어머니 애착유형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 오미경 (199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논문집(부산여자대학교), 32, 355-402.
- 통계청 (1999).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1998). 아동의 스트레스
- 한국여성연구소 (2000). 여대생의 직업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노동부
- Adams, P. L., Milner, J. R. & Schrepf, N. A. (1984). *Fatherless Children*. New York: Wiley.
- Amato, P. R. (1994). Father-child relations, Mother-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1031-1042.
- Chandler, L. A., Million, M.E. & Shermis, M. D. (1985). The incid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of elementary school ag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743-746.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as, B. E. & Forsythe, C. J. & Wagner, B. M. (1988). Consistency and variability in causal attributions and coping with 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305-320.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r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Coverman, S. J. & Sheley, J. F.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413-422.
- De Luccie, N. F. (1987). *Fathering from the preschool years through mid-adolescence: Variations associated with child age, child sex, and adult life course concer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Elkind, D. (1984). *The hurried child*. New York: Management & Music Publish, Inc.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olkman, S.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R. (1988). Autonomy and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Hardy, D. F., Power, T. G. & Cunningham, W.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Hoffman, L. W. (1989).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2), 284-292.
- Holahan, C. J.,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6-955.
- Karniol, R. & Heiman, T. (1987). Situational antecedents of children's anger experiences and subsequent responses to adult versus peer provokers. *Aggressive Behavior*, 13, 109-118.
- Kim, T. H. & Hye-Kyung Kim (2002). ILO Work-Family Programme: Work and Family Study in Korea. ILO. 2002 (unpublished).
- Kliew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 Psychology*, 27(4), 689-697.
- Lamb, M. E.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70.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Wiley, 3-59.
- La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 *Family Relations*, 34: 451-457.
- Laux, L. & Vossel, G. (1982). Theoretical and Methological issues in achievementrelated stress and anxiety research.
- Luster, T. & Okagaki, L.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역). 서울: 학지사.
- Lynn, D. B. (1974).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
- Medeiros, D. C., Porter, B. J.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Moorehouse, M. J. (1991). Linking maternal employment patterns to motherchild activities and children's schoo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295-303.
- Parke, R. D.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ne Wiley & Sons, 1-70.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a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Wiley & Sons, Inc.
- Pea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y and Social Behavior*, 19, 2-21.
- Volling, B. L.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61-474.
- Volling, B. L. (1997). The Family correlates of maternal and paternal perceptions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early childhood. *Family Relations*, 46(3), 227-236.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 Psychologist*, 39(7), 955-96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Cho, Ju-Eun

Chung, Ock 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5 children of fifth and sixth grad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were assessed by th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Scale(Choi, 1992)' and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s Scale(Choi, 1992)'.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were assessed by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Scale(Min & Yoo, 1998)'.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s a function of social demographic factors. (2)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s a function of social demographic factors.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showed high correlations in the categories of active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s. (4)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for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showed that about 10%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two variables of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utonomy', 'achievement', and that about 9.4% of the variance was accounted for by two variables of paternal child-rearing involvements; 'day-to-day guidance', 'home education'.

Keywords :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s,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